스포츠동아
sportsdonga.com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프라이부르크 권창훈 수원삼성 복귀 임박

K리그 6개월 뛰어야 상무 입대 가능
친정팀 수원, 연봉 부담 능력이 관건


권창훈

또 한 명의 유럽리거가 K리그로 컴백할 조짐이다. 축구국가대표팀 측면 공격수 권창훈(26·SC프라이부르크)이 국내 복귀를 조용히 타진 중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K리그1(1부)의 친정팀 수원 삼성이다.

K리그 복수의 소식통은 24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권창훈이 K리그 유턴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자세한 협상조건은 확인되지 않지만 수원과 선수 측이 활발하게 교감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의 빡빡한 살림살이를 고려하면 확실한 예우를 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원은 모기업이 삼성전자에서 제일기획으로 바뀐 이후 매년 선수단 운영비를 줄이고 있다. 유럽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한 권창훈의 연봉은 큰 부담일 수도 있다. 실제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수원은 올 연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팀 내 유일의 국가대표인 왼쪽 풀백 홍철(30)과 재계약하지 못했고, 계약상 바이아웃(50만 달러·약 6억 원) 이상의 이적료를 제시한 울산 현대에 내줄 처지에 내몰렸다.

선수의 현실적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창훈은 병역 미필자다. 병역의무를 다하며 선수생활을 이어가려면 국군체육부대(상무) 입대가 최상이다. 지원하려면 입대 직전 최소 6개월 이상 K리그에서 뛰어야 하고, 만 27세가 넘으면 안 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몸담은 친정에서 좀더 활약한 뒤 입대하는 것이 좋은 그림이다.

이적시장에 밝은 한 에이전트는 "수원 유스에서 성장한 권창훈이 어디로 가겠나. 당연히 (복귀 시) 수원을 1순위 행선지로 정했다. 팀에 대한 애정이 크다"고 말했다.

2선 공격수와 측면 날개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권창훈은 2020도쿄올림픽의 유력한 와일드카드(23세 이하 연령제한을 초과하는 선수) 후보로 꼽힌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올림픽이 내년 7월로 연기돼 좀더 빠른 결단이 필요해졌다. 올림픽 시상대는 병역특례 혜택을 의미하지만, 불투명한 내년 이후를 기약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1위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3년 연속 1위

설설 끓는 토트넘 이적설에 '토트넘 출신' 이영표 해설위원에게 물었다 "김민재도 통할까?"

"김민재 파워·기술·멘탈, 유럽서도 성공"


아시아 최고 수비수로 성장한 김민재에게 유럽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그 중 한 팀인 토트넘에서 과거 활약한 '국가대표 선배' 이영표 해설위원은 힘과 기량, 멘탈을 두루 갖춘 김민재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스포츠동아DB

1 유럽 중앙수비수, 꼰 출신엔 버겁지만
2 파워 좋고 공중 장악할 기술까지 겸비
3 화통한 성격·파이팅도 적응에 긍정적
4 유럽도 중앙수비수 부족…도전해볼만


이영표 해설위원

김민재(24·베이징 궈안)의 이적설이 점입가경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 FC포르투(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이적설은 손흥민(28)의 토트넘(잉글랜드)까지 퍼졌다. 외신에 따르면, 토트넘은 올 시즌 이후 떠나는 얀 베르통언의 대체자로 김민재를 점찍었다. 나아가 손흥민의 중재자 역할이나 조제 무리뉴 감독의 낙점 얘기까지 나왔다.

정황으로 보면 이적 가능성은 높다. 1350만 파운드(약 203억 원)의 이적료도 적당하다. 칼자루를 쥔 베이징 구단이나 김민재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올 여름 또 한명의 유럽파가 탄생할 전망이다.

김민재의 기량은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대표팀 중앙 수비수인 그는 건장한 체격(190cm·88kg)으로 몸싸움이나 공중볼 다툼에 강하다. 패스능력을 갖춘 데다 경기 흐름을 읽을 줄도 안다. 2017년 입단한 전북 현대와 지난 시즌 이적한 베이징에서도 최고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유럽은 또 다른 무대다. 특히 중앙 수비수가 성공하기 쉽지 않은 곳이다. 신체적 조건은 물론이고 기술, 전술이해, 언어 등 많은 것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김민재는 빅리그에서도 통할까. 토트넘에서 3시즌을 뛰는 등 유럽축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영표(43) 해설위원에게 성공 가능성을 물었다. "성공할 수 있다"며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우선 힘은 충분하다고 했다. 지금의 파워로도 통한다는 의미다. 높이도 나쁘지 않다. 더욱이 기술적 부분도 인정할 만하다. 이 위원이 말하는 '기술'은 광범위했다. 그는 "기술이라는 게 볼 다루는 것도 있고, 수비하는 것도 있다. 또 볼 없이 하는 기술도 중요하다"며 "김민재가 유럽 선수들에 비해 키가 월등히 큰 건 아니지만 기술적인 공중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자신이 헤딩을 못하더라도 상대가 헤딩을 못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멘탈도 긍정적이다. 이 위원은 "상대 선수에게 주눅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국에선 외롭더라도 혼자 살아가야 한다. 그런 정신력을 갖춘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민재의 파이팅 넘친 행동, 화통한 성격이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피드에 대해 약간 걱정했지만 이 또한 기술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첼시의 존 테리가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니었지만 최고의 중앙 수비수로 꼽히는 이유는 그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위의 빠른 선수들이 커버해줘 존 테리의 느린 발이 티가 안 났다"며 "김민재도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한 가지를 추가했다. 유럽도 뛰어난 중앙 수비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는 "물론 아시아 출신이 유럽에서 성공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유럽도 공격수나 미드필더에 비해 중앙 수비수 자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반 다이크(리버풀) 등 몇 명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김민재가 간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관련기사 6면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이정후·강백호·원태인·정우영, 2년차 징크스를 삭제한 남자들 ▶4면